

# 데이터 사이언스 SCHOOL

## 수강생 회고록

그 이후 -

지금,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  
데이터 사이언스 스쿨 1~4기 수강생들이  
현재 어떤 직군,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는지  
현황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 -

수료생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인터뷰

-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첫 발을 내딛은  
비전공자부터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을  
배우기 위해 잠시 연구실을 떠나왔던  
박사과정생까지 -  
수료생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 데이터 사이언스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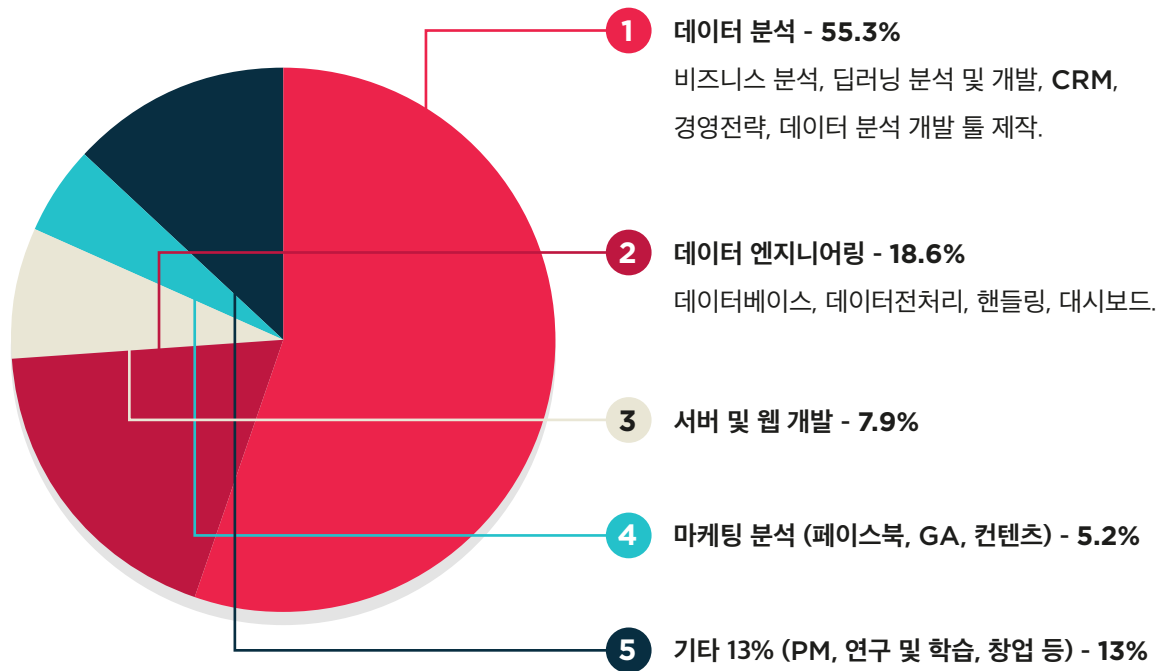
## 그 이후 -

지금,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

데이터 사이언스 스쿨 1~4기 수료생들이  
현재 어떤 직군,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는지  
현황을 알아봅니다.

## 지금,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실제 데이터 사이언스 스쿨 수료 후 데이터 분석 관련 직군에 종사하고 있다고 응답한 수료생이 전체 응답자 중 **55.3%**로 과반수가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 이전 데이터 앞단의 흐름을 다루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관련 직군의 종사자도 **18.6%**로 두번째로 많이 갖는 직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개발 직군에 진출한 수강생이 **7.9%**, 페이스북, GA 등 마케팅 데이터를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응답한 수강생이 **5.2%**를 차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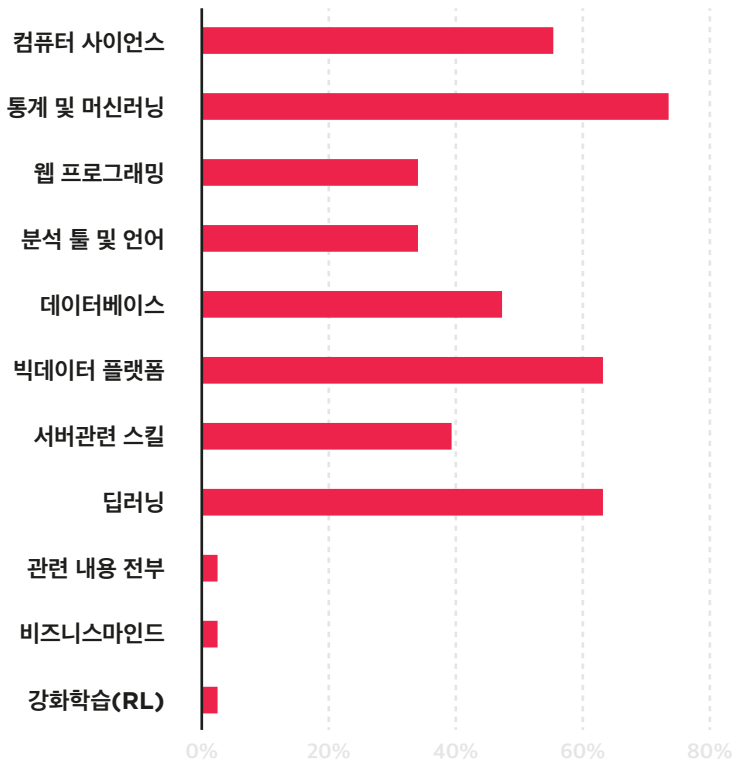
그 밖에도 프로젝트 기획, 대학/대학원 과정에서 연구를 진행하거나 창업을 하는 등 기타 응답자가 **13%**였습니다.

# 데이터 사이언스 SCHOOL

수료생 취업 기업



## 취업 후, 어떤 스킬을 더 공부하길 원하시나요?



취업 후 더 공부하고 싶다고 응답한 스킬로는 통계 및 머신러닝 이론이 **73.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빅데이터 플랫폼, 딥러닝이 각각 **63.2%**를 차지했습니다.

데이터 베이스 역시 **47.4%**로 과반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서버관련 스킬, 분석 툴 및 언어, 웹 프로그래밍 분야를 더 공부하고 싶다고 응답한 수강생도 **30%** 넘게 나타났습니다.

-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인지 **트레이드 인포매틱스 대표 김도형 박사**님께 여쭙보았습니다.

**Q.** 취업 후에도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대해 더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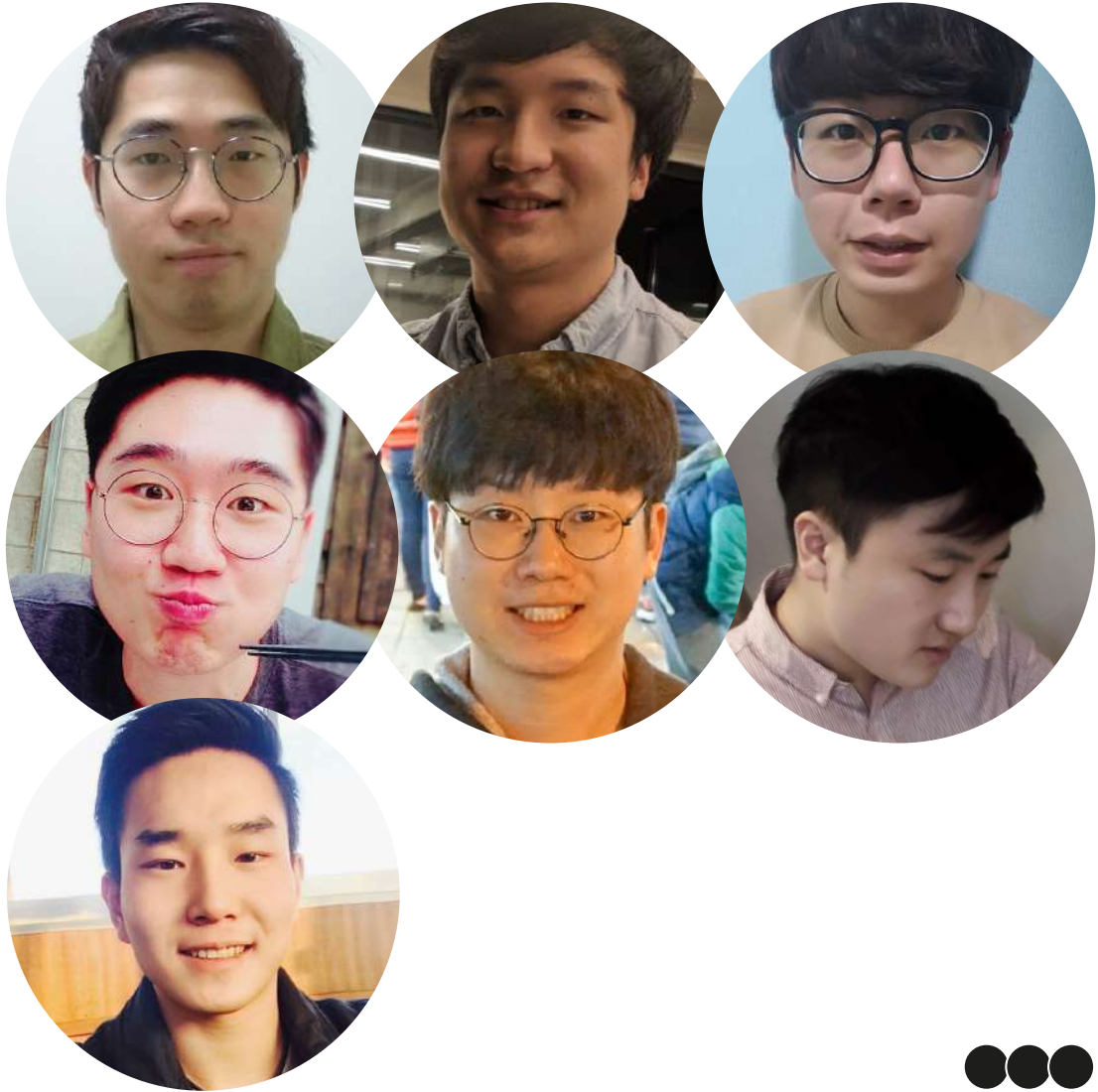
**A.** 회사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의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는 것은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이 실제 업무에 많이 쓰이며 필수적이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적인 공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도 어느 정도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무런 기반 지식이 없는 분들은 무언가 더 공부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개선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공부를 할 자신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스쿨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 ‘통계, 머신 러닝, 딥러닝’인데, 많은 수강생이 이 스킬을 더 공부하고 싶다고 답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죠. 더욱 긍정적인 측면은 많은 수료생들이 데이터 사이언스 스쿨 수료 후 실무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을 적용하고 있거나 또는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스쿨 과정 내에서 실무에 쓰이는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기술까지 모두 배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서 실무의 기술들은 더 깊은 세부 지식, 더 넓은 관련 지식, 그리고 오랜 현장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실제 업무에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을 적용할 때, 기존에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더 깊이, 세부적으로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 데이터 사이언스 SCHOOL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 -



## 수료생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인터뷰

-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첫 발을 내딛은  
비전공자부터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을  
배우기 위해 잠시 연구실을 떠나왔던  
박사과정생까지 -  
수료생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 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입니다.

비전공자가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



**남지열 님**  
1기

## 취업 후 스킬업을 위해 어떻게 하였나요?

회사 일은 문제 해결 자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관련된 기술 및 이론을 최소한의 범위로 규정하고 테스트 및 적용하는 방식이죠. 처음에는 이 방식에 상당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관련된 '모든'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반영하는 건 무책임하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지금은 '모든' 내용을 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했죠. 하지만, 위에서 말한 '최소한의 범위' 만큼은 철저히 이해한 후에 반영하고 있어요.

다른 한 축은 개인 스테디입니다. 회사 일과 달리 문제 해결보다는 이론 및 원리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스스로 어느 정도 '초보' 티를 벗어났다고 자각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 방식을 고수할 생각이예요.

## 데이터 분석가로서 내가 그리는 나의 10년 후 모습은?

순수 데이터 분석가 보다는 머신러닝 엔지니어로의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싶어요. 현재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data product를 개발하는 걸 무척 즐기는 사람이예요. data industry로 들어온 이상, 10년이 될 지 몇 년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data product를 개발해보고 싶어요.



**변성운 님**  
2기

## 커리어 전환에 성공하기까지 어떻게 스킬업해오셨나요?

전 수료 직후 취업을 잠시 보류하고 하고 싶었던 공부를 했습니다. 시각화를 위한 D3.js와 분산처리를 위한 아파치

스파크를 공부했죠.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매일 코딩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코드를 잘 짤 수 있을지 고민했고 데이터 사이언스 강의 내용 복습을 했습니다. 취업하기 직전에는 캐글을 하기 위해 패스트캠퍼스 머신러닝 프로젝트 캠프도 수강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패스트캠퍼스 스쿨, 캠프를 꽤 많이 수강했네요. 이런 경험들이 하나둘씩 쌓여서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데이터 분석가로 취업하기 위한 본인만의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을까요? 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Github 관리를 정말 꾸준히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요. 프로젝트 진행시 사용하는 용도보다는 제가 배우는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실함 역시 Github로 어필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지식뿐만 아니라 컴퓨터 관련 지식(알고리즘)도 깃허브에 계속 쌓아갔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차곡차곡 쌓여 이력서를 꽤 깔끔하게 작성하고 면접장소에서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배준양 님**  
4기

## 수강 전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어학 성적이나 인적성을 공부할 바에는 차라리 차별화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을 공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공인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통계와 분석에 흥미를 느꼈고 패스트캠퍼스 데이터 사이언스 스쿨 과정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 스쿨 수강 후, 어떤 회사의 어떤 직무로 취업하셨나요? 업무 및 생활은 어떠신가요?

위드이노베이션 데이터사이언티스트로 취업했습니다. 머신러닝, 인공지능, 비즈니스 관련 통계분석 등 다양한 시도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딥러닝을 활용한 텍스트 분석을 진행중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흥미가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분위기도 수평적이고 자유로워서 동료들과 협업하는 것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 미래의 데이터 분석가를 꿈꾸다.

데이터 사이언스를  
배우기로 결심한 대학생 이야기 -



**장준환 님**  
2기

## 수강 전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저는 한국외대 국제스포츠레저학과에 다니는 장준환이라고 합니다. 스쿨 수강 전과 지금의 저는 많이 달라졌죠. 수강 전에는 그저 스포츠에 관심이 많던 문과생이었어요. 휴학을 하다가 우연히 '21세기 가장 섹시한 직업'에 대한 글을 보게 되었는데 그 중 데이터 사이언스 직업을 보고 '이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처음에 어떻게 공부할지 몰라서 막막하던 차에 패스트캠퍼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 스쿨 수강 후 다시 복학하여서 어떠한 방향으로 본인의 실력과 가치를 키워나가셨나요?

수강 후 복학 전까지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었는데 3개월 정도는 강의 내용 복습에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나머지 3개월은 Python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어요. 처음 Python을 다룰 때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코딩을 했는데, 다시보니 왜 이게 필요한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복학 후 학교 수업으로도 프로그래밍 수업(C++/Python)과 통계 수업을 들으면서 복습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대학생 연합동아리 Boaz에서 매주 스터디와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며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올해 2번의 공모전을 참가했어요.

- 1)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입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 Football Performance & Scientific Support 논문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금상 (대한축구협회)
- 총 2번의 공모전을 참가하면서 개인적으로 자신감도 많이 얻고 부족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다양한 공모전에 참가하여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이번 방향 중에는 Kaggle competition에 참가하려고 해요!



**정다운 님**  
3기

## 수강 전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한 건 대학을 다니는 중이었어요. 전자 쪽에 비중을 두는 전공의 특성상 대학 강의로 배울 수 있는 개발 공부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대로 졸업을 하면 원하던 IT 회사에 취직할만한 역량을 기르지 못할 것 같아 1년 휴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휴학기간 동안 독학과 학원을 병행하면서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던 중, 패스트캠퍼스 데이터 사이언스 스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데이터에 기반을 둔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일을 좋아했기에 수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스쿨 수강 후 다시 복학하여서 어떠한 방향으로 본인의 실력과 가치를 키워나가셨나요?

2월부터 Udacity라는 무크에서 진행되는 인공지능 과정을 듣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학한 이후에는 학교 내에 '빅데이터 분석학'이라는 융복합 전공이 생겨서 관련 전공과목들을 수강하는 중입니다. 그 중 '탐색적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과목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스쿨에서 다루지 못했던 R과 BI 도구인 Tableau를 사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분석을 개인/팀 프로젝트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 데이터 분석가로서

### 내가 그리는 10년 후 나의 모습은?

아직 학교에 다니는 중이지만, 10년 후에는 해외 유명 게임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데이터가 쏟아지는 게임 플랫폼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데이터 분석가가 되고 싶습니다.



# 이제 꿈꾸던 연구를 할 수 있겠죠?



**김해인 님**  
4기

**데이터 사이언스를 배워서 얻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실제로 본 과정을 통해 원하는 부분을 학습해서 나아가고 계신가요?**

첫 번째 목표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는 머신러닝을 후속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온전히 내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초반에는 폭풍처럼 몰아치는 선형대수와 확률론 강의에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었습니다. 힘든 과정이 지나간 후, 기계학습파트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야 비로소 '아, 이래서 수학을 배웠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고, 오히려 수학적 부분에서 만족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데이터 분석 파트에서는 데이터 그 자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실습 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의 분포, 변수들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설명가능한 모델의 효용성까지 따져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신 툴을 활용해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 방법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여 데이터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방향 및 방법으로 본인의 실력과 가치를 키워나갈 예정이신가요?**

머신러닝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컴퓨터 비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지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신경회로와 동물행동을 분석하는데 활용되는 컴퓨터 비전 기술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가 원하는 질문들을 풀어가려 합니다.

**내가 그리는 10년 후 나의 모습은?**

지금 현재 학위과정을 마무리하고 박사 후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 기술을 성공적으로 신경과학 연구분야에 적용하고 있는 연구실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이지만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꿈꾸던 연구실에 들어가 여러 동료과학자들과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데이터 분석 기술 그 자체를 배우고 싶었어요.



**강희명 님**  
3기

**스쿨 수강 후 현재까지 어떠한 업무들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수강 후 하이어링데이에서 만난 홈마스터라는 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의 전략 수립과정에서 필요한 내부 데이터를 뽑아내고, 외부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업무를 주로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는 웹 개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마스터의 관리자 페이지의 기능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네이버 키워드 광고에서 기존 데이터를 통해 최적의 키워드 광고 조합을 생성해내는 페이지를 만드는 업무를 들 수 있겠네요.

**데이터 분석 직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현재의 업무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본인의 실력과 가치를 키워나가고자 생각하고 계신가요?**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사실 직접적인 데이터 분석 업무라기 보다는 데이터 product를 생성하는 업무에 더 가깝습니다. 스쿨을 들어오기 전부터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업 자체를 열망하기보다는 데이터 분석 기술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스쿨 수료 후에도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직업만 찾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나의 기술을 키워나갈 수 있는 회사를 찾아다녔고, 홈마스터 회사가 제가 희망하던 직군과 잘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고,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여 데이터 product의 품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싶습니다.